



報會同校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協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發行人 崔鄭朴 主宗正 鎬澤雄
編輯 行輯刷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FAX: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1】月刊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3년 9월 1일

第 186 號

冠岳캠퍼스로 관심과 참여를...



冠岳春秋

지난 8월말 母校의 100週年 後期卒業生 약 1천명이 우리 同窓會의 新會堂으로 모였었다. 이로써 우리 同窓會는 21만에 육박하게 되었다. 얼마 전부터 母校에서는 後期卒業式을 거행하지 않고 單大別로 學位證만을 전달하게 되었다. 卒業式이란 用語 대신에 學位證授與式이란 새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後期卒業會의 立場에서 본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나 學事行政의 輕便상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소한 줄임이 다른 한편으로 생가 해 볼 때 더 알차다고 할 수 있겠다. 後期卒業式은 單大別로 거행되기 때문에 유려한 허식없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거의의 더욱 친밀한 祝賀行事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新入會員을 맞이하면서

新入會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
는 결코 평탄치만은 않다. 우선 큰
나쁜 就職難인 것이다. 世界的

이다. 이는 참으로 공민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뜻의 참은 시인의 民主의改革으로 우리 나라에 일찍이 접지 못한 新法들을 접경하고 또 양도도 견을 짓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精神에서 그들은 新法을 내건다. 현이기에 양도법을 추천하는 마음이 더욱 자명하다.

여기서 특별히 말할 하고 싶은 것은 公共精神의 양도이다. 지금은 우리에게 절실 이 필요 한 것은 독립정의로 무장된 각계 각층의 指導일 것이다. 많은 우리 同門들이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指導의役을 을 수행해오셨을 우리니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부터의 우리 同胞이 도둑
적으론도 진실한 指導者가 되어준다면
우리의 보람은 한결 더 깊을 것이다.

여기서 그릇하의 우리 同窓會의 실정
을 알아보는 것도 뜻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새會들이 양종도 同窓會 활동
을 위하여 많은 寄與를 얻을 것을 바라
고 있기 때문이다.

本會는 69년 2월12일의 創立總會로
생겼다. 開校後 20여년간 總同窓會가
없었다. 그 이유는 單科大學이 여러 곳
에 산재하였던 까닭. 單大同窓會만
있었다는 점이었다. 참된 의미의 그 활
동은 매우 부족했다. 명실상부한 同窓會
활동이 개시된 것은 75년 冠岳分校
스님의 移轉後였다. 母校드림아
비로소 綜合大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모로 주치의 綜合性
을 띠게 되었다. 同窓會도 비로소
새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76년
4월 1일 本會報가 創刊되었고 78
년에는 同窓名簿가 처음으로 發刊
되었다. 同窓名簿는 그 후 修正再發
刊되었고 양호로도 전철한 시기에
再發刊을 치렀다.

同窓會建會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실은 會館建立인 것이다. 현재 여러同窓會에 의해서 애용되고 있는 회관도 우리同窓會의 오랜宿願의 結晶이다. 83년에 會館의 아낌없는 獻金으로 부지를 구입해서 5년후인 87년 8월에 회관竣工을 보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同窓會의 十匙 飯, 기여가 있었

本會의 海外支部設立의 計劃은 甚히 大膽하다. 현재 歐美各埠에 是 吾人의 支部가 設立되어 있거니와 本報는 同門을 위해 큰 工本을 하고 있다. 本報는 이제는 美洲版을 내게 되었다. 그것은 日刊新聞의 海外版이나 日報의 많은 體例를 海外에 照하고 있다. 금년 여름에는 海外支部 新設과 計劃을 위해 會長 團이 유럽 8 개국을 순방했다. 新入會는 이렇듯 나날이 발전해 가는 同窓會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점을 유념하여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同窓會를 위해서 많은 힘과 노력을 바친다.

母校支援 8천만원 支出의결

도서관 휴게실 설치비용으로

常任理事會 上半期 事業 목표 달성 보고 · 山行 日程도 협의

本會은 지난 8월 5일 오전 7시 30분 호텔 리베라에서 제 1차 차등회의를 실시하시와 및 관외의 57차 이상회를 열어 모교중앙도서관 후개설 설치지 원부제와 93년도 동아리부설 등산大會 2개회를 결정하였다.

崔主鎬 회장과 母校金商

선생님 다하고 있다」면서 『母校 金鍾玉先生에게서 받은 말씀이 계셨던』 도서관 후계실 설치위원부제와 친분을 가진 대학 일선에서 현의 하느님을 각 인사를 통해서 잘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교 金鍾玉先生의 모교인 **한양대학교**에 설립을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실시된 화사색신발이 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한신발이 공무에 열을 올리고 근무기요서 모처럼 서울대의 면모를 되찾게 됐다』고 했다.

년 동안 大學院同窓會長으로 있던 金道稾선임회장의 개 감사패 전달과 李光晝선임회장의 축하전과 李燦河 전영남대학원장이 의 신임이사가 88년 10월 8일 도서관 휴게실 설치비용 8천만원의 지원과 동심단회를 오는 10월 17일(日) 개최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건심의후에는 盧載源(55년 法大卒) 前中國大使의 「中國의 이모저모」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려사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任員을 깨 감시하며 在學生들과 이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先輩들의 經驗에서 많은 것을 터득한다'고 말했다.

副會長인 玄林鍾(60년 商大卒·한양고고社長)은 문외의 사화로 인해 任員은 선배배의 대화에서 선배들의 經驗에서 재학생들의母校의 現況과 학생들의 소감을 서로 격의없이 나누는 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經大完 任員의

濟州지부

對話의 시간 가져

在學生，學究에 熱中하자. 닳부도

동창회 濟州支部(會長) 金炳贊 · 60년 醫大卒 · 한라병원장(그지날 5일 오후 6시 제주시내「프라자

를 졸업한지 40여년이 지
나 오늘날 젊은 후배들을 대
하고 보니, 감개무량하다.
먼저 「모교의 명譽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學究
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제주知事를 역임한 李昇
澤(44년 法大卒)교무장은 격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燦河)는 지난날 7월 서초동 미술관에서 회장단과 가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4월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부회장단의 추가선임을 완료했다.

停年퇴임교수 祝賀宴

獸醫大、新年예산안 의결

여명(1백여명의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金炳贊 회장이 인사말에서 『母校

獸醫科大學총장회(會長 金範來)는 오는 14일 오후 6시 반포유구스호텔에서 93년도 定期理事會를 및 모

한편 定總 주비와 기근조 성, 동종의 황신하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 다.	·李徽老 70년卒) ·李逸均 (71년卒) ·金萬君 71년卒) ·金秉植 72년卒) ·俞敏喆 (72년卒) ·高昌錫 73년卒)
---	--

새회원 9백71명 迎入

後期준영식 單大別로 거행

오는 10월 9일 개최예정인 定期總會를 앞두고 열리는 理事會에서는 過年度 결산보고 및 내년도에 예산과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郭秀 一교수부임
張斗煥(寄生蟲學)교수李
昌業(毒性學)교수에게 기
념품 전달식도 갖게 된다.

發展기금常任이사

지난 5월 서울大學校
發展基金 常任理事 金璟東
교수의 뒤를 이어 經營大
學 郭秀一교수가 同재단
삼익이사로 부임했다.
郭秀一교수는 63년 商大
와 美京립미아大 經濟대학
원, 위싱턴大에서 經濟學
박사학위를 취득, 모교 경
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單大別 會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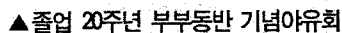
(單位 名)

區 分	8月卒業	總會員
人 文 大 學	53	5,554
社會科學大學	74	6,975
自然科學大學	38	5,576
家 政 大 學	12	2,236
看 護 大 學	・	2,416
經 營 大 學	29	3,108
工 科 大 學	34	26,347
農 科 大 學	52	14,406
文理科大學	・	9,731
美 術 大 學	3	3,226
法 科 大 學	30	11,800
師 範 大 學	35	19,336
商 科 大 學	・	6,723
獸醫科大學	1	1,467
藥 學 大 學	・	4,828
音 樂 大 學	9	4,784
醫 科 大 學	・	8,137
齒 科 大 學	・	4,498
大 學 院	525	38,687
經營大學院	・	701
教育大學院	・	653
保健大學院	32	1,827
司法大學院	・	508
新聞大學院	・	264
行政大學院	18	2,987
環境大學院	26	1,107
小 計	971	187,882
準 會 員		13,338
總 計		201,220

동양의학박사 지단 8월말
 후기하위수여신에서 9배
 71명(學士 3배70명, 碩士
 3배25명, 博士 2명78명)
 을 새하임이되니 맛이었다.
 이므로 저두마의의 考選은 수
 인 20만1천2백20명(準會
 員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각과다하별 회임수준은
 별표와 같다. ▲名單 6
 7面 참조▽

藥大 69 同期會

恩師와 夫婦 동반 야유회 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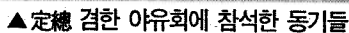
明太祖(명조)를 모시고 지다 5월 30일 모교 靑楓사에서 부부동반 야유회회를 갖고 홍재문 시간을 보냈다. 또한 徐東和의 사의 총기회으로 가족사친과 모교장생, 교수님 사친,卒業사친들이로 구설원 기념연회를 제 작, 배후하여 부친을 모시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藥學人으로서 자기가 애초를 다한다는 마음이나 개인사생활을 중심으로 그들을 향하여도 대대적 행위를 수에 참가, 학술 및 기

간의 친목과 友誼를 돈독히 하고 연말에 총회를 개최해 2년마다 임원개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졸업 20주년 기념으로 그 당시 恩師였던 朴萬基先生과 李

술정보교황으로 상충발
전을 피하고 있다. 이런
한 노선이 모교와 동창
회어까지 확대돼 이번엔
1천만회를母校의 킬링
터기자재들을 마련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經濟界등 전문경영인 많아

獎學사업 恩師돕기로 저력과 시



한글대역의 성신이라
무단해 내부조직의 기록
을 지니 金明浩의 종자
를 위시해 李祥根의 아들
행장 成旭基의 아들인
李炳宣은 보람이 많은
이름을 얻어 인정을 받
아면 이 행장의 최고 유
치까지 오른 인사가 네
명이다. 그리고 金明浩의
종자인 韓銀의 아들인
朴贊文은 유물제원장부
조종이행의 孫東睦과
沈載錫을 기신으로 행장
부 金右圭의 아들인 朴
淸濟는 朴贊文의 아들인
羅濟鎭의 조종이행이다.
노니 이 행장은 한문
서학에도 밝다.

한글대역의 성신이라
의 元國韓銀의 아들인
朴炳烈은 朴贊文의 아들
承祚는 朴贊文의 아들인 朴容
熙의 아들인 朴李熙

신영웅·권갑사 등 네티즌
알려진 인물들이 많이
있으며 宋世昌교보문고
회장과 李弼圭동서양화
회장, 姜東求동서투자자

문고문, 동부그룹부회장
을지낸 孫尙模, 俞英一
해태상사대표, 李泰植제
일생면대표, 崔圭근그동
셀화회사장 등 전부영영

[illegible][illegible]

Can Do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것이 불가능하다. 어떠한
것이나 천부행사의 모교를
배틀해 위대한 장사꾼
인사부가 그 체로만 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에 찬 단단한 정신으로
어디까지나

엔 교수나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동국대
이 많다. 官界에는 崔修
榮(보사부 E.C 파견관)·
金是憲(환경청국장)·金
學燁(환경청 일반과기
관)·金惠琬(특허청심사
관)·李在熙(의대)·한

産業界에는 權琮遠(공
아재와 수석공)·韓益
泰(공제인품 삼남)·程
鍊鎮(일종제인 범원실장)
·申大云(장식 Coates.
사장)·朴正價(한국
& 미합성)·孫仁子(모
교병원 조제과장)·金光
煜(태평인품)·朴
聖鎮(한국로슈이사)
·金泰成(일종인품)·李
三淵(일종수석).

있는 임원익은도 趙源益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에
俞載應·鄭永淑·全仁九·
程鍊鎮·車允軾등은, 감
사에 鄭文琪·張永子등
문, 許明權등이 출두
로 애쓰고 있다.

새會員名單 (9백기명)

學士

◇ 人文大學

- ▲국어국문학과
이우열 김천우 고두석 이철희
김철식 노세경 김윤정 이형빈
백스터
- ▲영어영문학과
장현유 기이선혜 김청수
맹정환 조중찬 김지영
▲불어불문학과
권오기 홍성기 박미경
▲독어독문학과
김광학 문준철
▲노어노문학과
이석재 심정구
▲서어서문학과
권원직
- ▲언어학과
김용현 오창식 임후성 구소령
▲국사학과
심현재 김동성 이성수 이종서
- ▲동양사학과
서정보
- ▲서양사학과
김용혁 안선미 안태형 최수영
최우경
- ▲철학과
장영근 임정철 이수훈 이은성
김준섭 최돈관 김유석
- ▲종교학과
최승린
- ▲미학과
신승원 프란트
▲고고미술사학과
김익재 강현희 박소영 홍찬희
이소영

◇ 社會科學大學

- ▲정치학과
김광순 이성태 임상욱 최선호
이영봉
 - ▲외교학과
권세중 나상훈 신현영 조영민
김창환 김민정 박주현 김범진
유수빈 이재동
 - ▲경제학과
김성진 손영춘 신재영 임정진
- 정택기 박성욱 배창성 엄재규
이상원 조병관 한정희 박인배
윤원식 이상훈
- ▲국제경제학과
김선창 강정엽 박인구 서용원
성호성 김승주 김태정 노창현
심재훈 안병우 이승근 정성욱
김화균 류인숙- ▲사회학과
김양순 김용호 진창범 김석
심규현 이철수 홍승우 김상은
김준희 김환진 유영근 한귀영
- ▲인류학과
김봉소 현동림 김문성 박용성
박장호 조갑래 이근호 이현정
▲심리학과
김성규 이종선 이민주 이종현
정의엽
- ▲지리학과
권석민 임진욱 최종관 조경제
▲신문학과
김종훈 김태우

◇ 自然科學大學

- ▲수학과
최철호 박환일 기병섭 심준섭
황성운 민영태 신병훈 이재욱
▲계산통계학과
한현조 윤원길 이창주 김홍근
▲물리학과
정진형 김문수 안준철 윤영규
▲천문학과
김범수 정태진 노진철 심창호
▲화학학과
안성용 최영준 조민욱 김태우
추현아
 - ▲생물학과
배원식
▲분자생물학과
최범락 김웅기
▲미생물학과
채정락
 - ▲지질학과
조진환 홍권표 유재환 강명효
장재훈
 - ▲해양학과
박상희 이상훈 박정호 김진욱
- ▲식품영양학과
이지선 피혜원

◇ 家政大學

- ▲의류학과
박미란 류진숙 김미호 배영
윤형오 이수형
 - ▲소비자운동학과
고현숙 한인숙 김영옥 송중례
- ▲경영학과
최용표 김성현 박재용 최재원
강병주 김태중 서대수 심형진
이상준 임종후 전형관 조민제
한정기 황성택 김민수 김일주
김종서 김희수 문계관 선호진
이현조 조원찬 최홍순 정원영
홍정균 김경우 김옥배 최영석
이은화

◇ 工科大學

- ▲건축학과
정희철 김남준 김재홍 이승은
이지명 이현호 정진호 허낙기
오서원
- ▲금속공학과
전희진
- ▲기계공학과
장문영 남호원
▲기계설계학과
정창현
- ▲산업공학과
김병규
- ▲설계고분자공학과
이재정 양지철
- ▲원자핵공학과
송수준
- ▲자원공학과
홍순파 박재를
- ▲전기공학과
이선우 김한관 장춘하
- ▲전자공학과
김범진 김태일 모 센 황규병
- ▲조선해양공학과
이정철 이윤길
- ▲토목공학과
강주엽
- ▲도시공학과
김영택
- ▲환경공학공학과
박정렬
- ▲화학공학과
박찬식
- ▲제어계측공학과
전명수

◇ 農業生命科學大學

- ▲컴퓨터공학과
정현태
- ▲농학과
박기진 김장욱
- ▲원예학과
김승호
- ▲산림자원학과
류명곤 이성룡 임동민 홍동수
황영현 정기창 김재홍
- ▲임산공학과
김성대 김순배 박형규 김용진
- ▲농화학과
김병모 신석렬 박종택 정종국
- ▲식품공학과
이종매 손정원 안진용 진제형
- ▲농경제학과
김선주 이재용 문준언 이형범
- ▲동물자원공학과
안희동 이윤규
- ▲천연섬유학과
허남원 최종인 김승용 류 광
- ▲농생물학과
이종호 정철의 김이태 하정욱
- ▲농업토목과
박영철 박영수 김석한
- ▲농업기계과
기노훈 이강걸
- ▲농가정학과
김경주 김은진
- ▲농업교육과
박용원 이재춘
- ▲농촌사회교육과
박경순 기강도 김용철 김현희
조성백
- ▲조경학과
임홍주 최 광

◇ 美術大學

- ▲서양화과
신진수 김춘환
- ▲조소과
이수영

◇ 法科大學

- ▲사법학과
홍동오 김영섭 이완희 임영보
송창현 이강훈 채승우 문보경
송지훈 이상동 이태열 정지영
이석희
- ▲공법학과
박제동 권용근 김진규 문철호
노준 윤민규 조자룡 심재철
윤영환 강명일 김용원 김차곤
김현욱 김홍진 장윤정 정지현
정기용

◇ 師範大學

- ▲교육학과
김용선 변범식 김상미 김용
- ▲국어교육과
김창동 송영준 안미란
- ▲영어교육과
김재광
- ▲독어교육과
최승재
- ▲사회교육과
김만균 고영호 최용찬 이승형
이현미
- ▲역사교육과
이상래 최현삼 강희정 김효경
박수경 최지영
- ▲국민윤리교육과
권혁준 김도연
- ▲수학교육과
강선화 김영화 박윤정
- ▲물리교육과
조자익 이윤섭
- ▲화학교육과
이재호
- ▲지구과학교육과
정은희
- ▲체육교육과
이길호 황선진 은선덕 임성엽
송민성 양종구

◇ 獸醫科大學

- ▲수의학과
권관길

◇ 音樂大學

- ▲성악과
장한권
- ▲작곡과
고영신
- ▲이론과
주재원
- ▲피아노과
원지연 조혜진
- ▲현악과
현혜진
- ▲관악과
황진화
- ▲국악과
이지숙 황석정

◇ 醫科大學

- ▲의예과
정민권 윤성준 김도환 빈철원
신재원 정봉명 김동훈

◇ 齒科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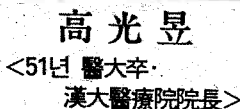
- ▲치의예과
김성수 염순준 윤영규

이시원 전정환 김태룡

국내인을 말하고 세계
는 급변하는 변화이 그것
도 기술과 학을 뿐만 아니라
삼이 모든 부분에서 이루
어지고, 세계로 인한 학의
공작속에 처해있는 실정
세계 유수의 醫學잡지는
물론 4천여종의 잡지에
실린 새로운 논문과 정보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 學問世界, 文化, 政治, 經濟 모든 분야가 그렇하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정보는 放送 新聞, TV, FAX,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사시간에 전지구에 전파되고 있으며, 意識이던 아날로그의 국제화, 지구화, 세계화의 현



학부에는 국경이 없지만
 노구나 다 익히 실감하고
 있다.
 學者에는 국경이 있다는
 옛말이 새삼 실감을 뿌만
 아니다. 국경이 흐려지는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 국제
 화 물질을 지시하여야 한
 다.

가 추임새에 맞추어
있는 MEDLINE을 통
하여 수집되는 시스템
MEDLARS CENT
ER가 서울대 醫大 도서
관에도 설치되어 연구의
첨단화 정도 교황이 퍼스
널 컴퓨터를 통해서 눈코
뜯새없이 교환되고 있고

정문의 호수속의 밑근과
있는 것이다. 그 밑근은學
問의 궁전과 물결이 밀려
들어
하나 서울이 보스톤이
아니고 서울大學이 옥스포
드대학이 아닐진대 서울大
學의 고유의學問體系 特
性이차 差別化되는 必要
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거의 반세기여 가깝지만
國際學界에 이름이 나돌
을수 있는 한문체재나學
脈이 이어지고 있는가
무자칭하고서 380년
평생이 이것을 몸부림치던 한
사람으로서 그간 어떤
일을 하였는지 한평생
자책하며 말할수 없는
고인。

손자인 子思였으며, 子思의 門人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孔子의 學統을 전파시킨 것은 孟子라고 한다. 즉 孔子의 學統은 孔子, 曾子, 子思, 孟子로 傳授되고 계승되어 온 것이다. 孔子에는 「論語」가, 曾子에는 「大學」이, 子思에는 「中庸」이, 孟子에는 「孟

한문체계 제자가 없던 학
 시대의 2백여년에 걸쳐
 서서孔孟의 한문체계는形
 성되었고이를 알 수 있다.
 이 당시의 교육은 오로지
 도덕교육일 뿐 소위인
 기를잡았다. 춘추전국시
 대에 있고 자란스관유제
 술이 있어學脈이연결하

내일 기약할學風의 세계 아쉬워

다시말해 한문의 뿌리를 전함이 있는지, 學風이 그리 學統이 자랄수 있고 뽑내는 學脈이 自生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싶은 심경이다. 후학을 우리 나라 에는 화인과 學閥主義는 있지만 學風은不在라고도 한다.

서울大學校가 참된는지

옛 선비들께서 소중히 여기고必讀한 儒敎의 중요한 經典인 四書를 생각해보자. 주자학다사포 四書만학(四書만학)「論語」「孟子」「大學」「中庸」을 가리킨다. 孔子의 學問의 眞髓를 전한분은 제자인 曾子이고 曾子의 學을 이어간 것은 그 제자이며 孔子의

子(子)가 있어 孔(孔)은 孟(孟)의 소위 孔(孔)의 학문은 學(學) 論(論) 孟(孟)의 四書(四書)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四書(四書)가 유교의 중요한 經典(經典)으로서 古來(古來)로 존(尊)하여 온 까닭도 바로 이런데 있다.

서기전 5백년대(孔子)부터 3백년대(孟子)에 이르는 戰國(戰國)의 亂世(亂世)인 春秋(春秋)

334세대에서 소심한
속에서 독창성 창조의 국
면 전환으로 국제관계에 밝
넓 결심이 찬란하기를 충
정도로 기원하며, 지니간
어제를 받게 바라보고 다
가오는 내일에 화신을 가
질 수 있는 화풍이 후유하
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스트레스란 말은 心理的으로 받은 압박감을 뜻하는 非特異的인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흔히 이를 心理적 또는 肉體적에 관련된 것으로만 귀착시키거나 해결책 또한 심리적인 면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良, 癩尿, 四肢無力症等도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신체적인 요소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精神身體醫學에서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과정을 정신적 자극에 의해 생기는 신체적인 변화로서 內分泌系 또는 神經化學의 인 변형

느 것이 원인이 되고 결과
가 되는, 두가지 측면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主體에게 심리

스트레스要因解

법도 역시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트레스 解消策을 강요하는 것은 옳다는 외부의 자크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인

(1)

亞
病院>

우선 스트레스의 量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흔히 이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사실 자체에 대하여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기복자의 로 갖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源泉이 되는 대 상을이나 생활에서 스스로 멀리 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유발요인이 존재하는 조건을 우리가 살

한 개인이 외부적 자극에 대하여 수동적인 자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되기보다는 그것을

모, 발전이 없다는 것은
 결국 퇴보를 의미하며 때
 리짐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따라서
 시신의 전후분야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무언가 발
 견과 개선을 추구하려면
 적절한 양의 자극과 그
 따른 스트레스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
 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받고 새로운 시도

체적인 변화를 함께 느끼는 요인도 병은 의미에서 보면 두가지가 각각 또는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마음에 사소한 충격을 받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여 그것의 심마리를 풀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그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나아가서는 식慾減退, 不眠症도 생겨날 수 있으며, 일과적인症狀으로서 頭痛, 消化不

즉 심혈관적인 변화가 동반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것과 다른 예로 어떤 신체적인 질환이 생기는 경우, 그것이 일차적인 요인이 되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게 되는 경우도 많이 결 론지어 보고한 개인에서 身體의 精神이 심오영양을 주고 받게 되어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데 어

食慾가퇴

李 靜
<80년 醫大卒>·母

을 결의 것이거나 우리
가 극복해서 더 나은 상황
을 만들어 나가는 데 어떤
피해로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
하려는 것 자체가 도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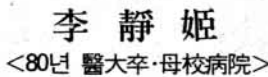
의 能動대칭

중상나타나

배를 자처하게 되는 경
가 종종 있다. 물론 한
이이 전되어 나기 힘든
힘의 스트레스를 계속해
받다 보면 그것이 모든
적인 疾患과 신체적인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어떤 성취를 이룩하기 위
 해 그것이 어떠한 것이
 해결과제 또는 연구과
 제를 늘 갖고 있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것이
 다. 그것은 대차해 나간다 보면
 그것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어 보
 고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

려는 태도가 개인과 집
 및 사회에 미칠 수 있
 는 부정적인 측면도 감
 초해야 한다. 갈등이 생
 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긍정적
 미를 되새겨 볼만하다.
 스트레스의 量의·質의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것, 갈등 중립의 자극이나
 전도 받아들이는 개인에
 라 스트레스가 되거나
 될 수도 있음과 덜 되거
 나 덜 될 수도 있다는 점
 나 또는 개인마다 스트
 스를 받는 외부 자극의
 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발전, 改善추구의 能動대처 중요

저인 것과 신체적인 것 중 어느 쪽이誘發因子가 되어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은 두가 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

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지를 심리화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스트레스의意味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배를 자처하게 되는 경
가 종종 있다. 물론 한
인이 견디어내기 힘
의 스프레스를 계속해
바다 보면 그것이 모든
적인 疾患과 신체적인

자신의 절부분야에서
면설취를 이루하기 위
여그것이 어떠한 것이
해결과제 또는 연구과
를 늘 갖고 일을 하지
으면 발전이 없을 것이

나 또는 개인마다 스트
레스를 받는 외부 자극의
유가가 다르게 나타난다.

- 김동춘군(90년) 人交大卒
- 허연미양(99월 18일 14시)
- 황창진군(89년) 社會大卒
- 김현정양(99월 18일 15시 30분)
- 박성구군(84년) 師大卒
- 최명진양(99월 19일 11시)
- 박찬규군(85년) 農大卒



▲文信
(50) 大卒・辯
士・本會理
事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수교를 받았다.



▲柳永雲
(60 歲)
理大卒・輪
林大學校



장교로부터 제1호 외국인
장준소재길립대학伍卓群
국가중점대학의 하나인길립
大教授) 11 최근 중국내 10



통신대학에서 「大統領 教育公約, 어떻게 實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학술세미나 개최

結婚 揭示板

新刊

■ 꿈의 해석(프로이트著)
—曹大京(母校교수)編譯

57년 文理大卒, 社會科學大 심리학교수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통하여 인간은 정신적인 균형의 유지를 위하여 꿈이 필수적이고 행위의 대체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곧 꿈은 우리 삶이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睡眠 中에 自我의 停滯性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평소에 늘려있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하는 꿈의 의의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720면, 12,000원, 서울大出版部>

■ 약-수용체 상호작용
—朴贊雄(母校교수)著

60년 醫大卒, 醫科大 약리학교수로 이 책에서 藥物의 用量에 따르는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과 여러가지 약-수용체 이론을 수용하여 측

정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약작용이란 약-수용체 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수용체 상호작용의 이해가 약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에서 약리학에 관심을 가졌거나 연구 학도에게는 필독서의 하나이다. <172면, 6천원, 서울大出版部>

■ 再活의 理論과 實際
—徐文子(母校교수)著

67년 母校 看護學科출신. 간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徐동문이 간호현장에 있으면서 再活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재활중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미있는 책이다.
생활의 터전이 중요워지고 醫療知識과 기술의 발달로 慢性患者와 外傷患者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신체손상환자가 再活하는데에 큰 관심을 갖게 된 요즘 전문가로서의 사고와 견해는 중요한 도움을 주게 된다는 점으로도 주목을 받게 된다. <390면, 13,000원, 서울大出版部>



▲ 피아니스트 朴景欄



▲ 피아니스트 孫理俊



▲ 피아니스트 文龍姬

公演

■ 朴景欄 피아노獨奏會
—9월9일 예음홀

92년 모교音大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朴동문은 79년 한국일보 콩쿨에서 銀賞을 수상한 것을 비롯 틴 에이지콩쿨, 삼익콩쿨, 춘추음악콩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

91년 월간 피아노음악주최 “젊은이 음악제” 출연과 92년 “우수신인 피아니스트 데뷔연주회” 등을 통해 간결한 음색과 풍부한 음악성을 지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독주곡은 모짜르트 8개의 변주곡 A장조, 카발레프스키의 소나타 제3번, 슈만의 작품 사육제이다.

■ 孫理俊 피아노獨奏會
—9월 17일 예음홀

86년 모교音大卒, 獨國립하노비대와 국립라이프치히대학원을 수료한

孫동문은 라이프치히音大주최 실내악콩쿨에서 1등없는 2등입상으로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독일에서 각종 피아노협연과 독주회를 가졌다.
이날 연주할 곡목은 바하의 골드베르크 變奏曲전곡인데 이 곡은 주제와 30개의 변주곡으로 되어있는 장대한 곡으로 연주시간이 50여분 걸린다.

■ 文龍姬 피아노獨奏會
—9월 22일 예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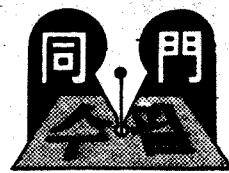
66년 모교音大입학, 在學中에 오스트리아로 유학하여 빈 아카데미를 首席으로 졸업했다. 유학중 이탈리아 비오티 국제 콩쿨에 1등입상을 비롯하여 비엔나 다 모타 국제 콩쿨, 제네바 콩쿨 쇼팽상등을 수상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바 있다.

이날 연주곡은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A장조, C장조, Bb장조인데 샘솟는 듯한 아름다운 선율로 호소력있고 낭만적인 프로그램이다.

에 白虎亭, 下村에 石虎亭을 세우게 했을 때부터 4백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원래 石虎亭은 장충단공원 남쪽에 있었으나 도시계획상 신당국의 권유로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한양궁전의 舊射亭이 오랜 風霜으로 노후되어 복원되지 못하고 양궁장으로 신축되었는데 그것은 傳統國技라는 도무치 어울리지 않는 시한착오였으며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南

남國으로 불린 角弓은 高句麗로부터 만들어졌다. 달리는 馬의 騎士가 활을 쏘며 사냥을 하는 高句麗 古墳壁畫의 流麗한 狩獵圖는 활을 사랑한 高句麗人의 기개와 생활을 엿보게 한다. 新羅는 元聖王 4년 文武科의 古別이 생기기까지 弓術로 인재를 育하였는데 그것을 중히 여겼으며 高麗때엔 弓矢를 中國에 조공으로 바친 기록이 있다.

적자질을 가진 名弓의 後裔들을 일컫는 것이다.
國弓은 물론 射心을 뽐내야 하는 대나무 민어부레를 樺皮를 얹서 針로 4개월이상 精巧奧妙한 製作과정에서 거친데 오직 匠人의 人間文化財로 지정되어 있고 후손도 수명 있어 國弓 제작의 脈이 계속되고 있음을 다 행한 일이다.



金大奎
<66년 保大院卒·
保大院同窓會長·詩人>



國弓禮讚

朝鮮朝에 이르러서는 弓術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일제시대엔 國術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國術이란 자라잡아 정신수양과 체력단련의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2백60여 개의 弓道회가 있으며 射亭이 1만여 개가 있다.
古來로 활은 우리의 체질에 적합한 運動으로서 中國의 槍術, 日本의 劍術과 더불어 朝鮮의 弓術을 三國의 國技로 꼽는다. 오늘날 우리의 젊은 武士들이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을 제패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傳統民族武藝를 계승한 臣부

心正矢正의 정신수양·체력단련에 으뜸

朴正熙대통령 서거 때 전국무위원이 그 영전에 國弓을 바쳤으며 그것은 묘수에 射禮가 들어 있었다. 武人精神의 고인에게 어울리는 선물이었다.
국인들이 射禮에 나란히 서서 호수를 가다듬고 호수의 影으로 시위를 당겼다. 깃지손을 확 뿌리던 화살은 拋物線을 그으며 蒼空을 가로고 날아가 광하고 1백45미터 거리의 目標에 꽂혔다. 그때의 擲物한 기분이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
활은 힘을 전신에 규배하기 때문에 전신운동이 된다. 처음 활을 배웠을 때 四肢의 근육통과 함께 몸살을 앓았다. 射禮는 주로 노인층인데 교수, 회사원, 의사, 기업인, 장군, 주부 등 다양하며 최근에는 靑眼의 外國大使한분이 國弓에 심취하여 매일 아침 함께 射禮에 선다.
나는 弓歷이 15년쯤 되는데 활을 쏘면서부터 몸이 탄력이 붙고 위장도 좋아졌으며 事物을 좀더 여유있게 마음대로 바라보게 되었다.
매미소리가 바닷물을 이루는 南山的 綠陰속에서 나는 오늘날은 山의 陰影로 國弓의 시위를 당긴다.

「서울대학교同窓會報」는 廣告媒體로서도 權威와 信賴를 認定받고 있습니다. 企業의 이미지 刷新과 PR에 여러분의 參與있으시기 바랍니다.

年會費 내는 사람

理事 5월 31일 ~ 7월 31일
一般 8월 1일 ~ 7월 31일

人名 및 원내 숫자는
該當大學의 卒業年
度입니다.

理事

◇ 家政大學

郭明順 63 주부
金慶香 69 서울대학교
李基榮 70 서울대학교
張知憲 62 서울대학교
崔純玉 65 구정고교
玄溫剛 68 인하대학교

◇ 農科大學

康英周 63 대안고교
高光出 69 서울대학교
郭芝相 67 수안고교
金東錫 65 전라북도
金永圭 65 삼척고교
金泳連 61 인천고교
南宮堅 64 유한고교
申天秀 69 서울대학교
嚴基德 49 보림고교
禹保命 61 서울대학교
禹東澤 60 한양대학교
陸完振 68 두산고교
李康世 62 신원고교
李來秀 64 동원고교
李參雨 64 기성고교
李尙奎 69 중원고교
李賢秀 64 신원고교
林承龍 61 배고고교
鄭旭基 63 회고고교
洪錫 64 금북고교

◇ 工科大學

姜錫圭 60 호서대학교
金洙 65 광주대학교
金東憲 69 우진고교
金延珠 63 한양대학교
金仁駿 63 제철고교
金正雄 67 대우고교
金昌珠 63 부천고교
金炯吉 62 미원고교
金炯璧 61 현대중공업
南正鉉 61 대우고교
朴德七 61 화성고교
朴元根 69 금성고교
朴利寬 62 제철고교
朴贊敏 63 E.N.G.사
成漢杓 69 한서고교
申鳳植 65 한서고교
楊文錫 65 한서고교
嚴道幸 65 한서고교
禹福均 65 한서고교
俞文植 63 제철고교
尹張燮 65 서울대학교
尹鍾求 65 서울대학교
李宣 63 해운대고교
李基明 65 S.Y.고교
李基俊 61 서울대학교
李俊植 61 K.A.I.S.T.
張樂英 66 고신대학교
張明珠 65 전라북도
張炳珠 65 우원고교
丁明植 65 포항고교
鄭貴華 65 인천고교
趙永承 60 이시중고교

◇ 文理科大學

金駒 63 극동고교
金文錫 65 서울대학교
金鳳錫 49 서울대학교
金世宗 67 유성고교
金龍國 69 I.P.S.사
金鴻君 63 서울대학교
柳實範 65 대전고교
關英基 61 전라북도
朴實 63 국원고교
朴基浩 67 인제대학교
徐光錫 65 서울대학교
徐在萬 65 인제대학교
孫孝珍 65 서울대학교
梁海出 65 인제대학교
嚴俊傑 65 서울대학교
元容大 63 동부(주) 회장
尹榮卓 69 국원고교
李權基 65 한서고교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며,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에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
고 있습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費구분

· 一般會員	1만원
· 理事	5만원
· 常任理事	20만원
· 監事	3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 法科大學

高光夏 63 변호사
郭基旭 63 변호사
權光重 65 서울고법부장
金東澤 65 서울고법부장
金昇澤 65 서울고법부장
金榮珍 62 서울고법부장
金周仁 65 서울고법부장
金炯錫 65 서울고법부장
金洪珠 67 대한변호사
羅東錫 65 한서고교

◇ 師範大學

高俊植 65 구정고교
郭漢哲 64 광안고교
具昌模 65 청양고교
金光珠 65 원주고교
金南哲 65 서울대학교
金東均 70 내소초교
金榮教 49 대한고교
金榮義 63 부안고교
金仁煥 62 태안고교
金俊文 62 태안고교
金俊彦 64 태안고교

◇ 商科大學

康南彥 65 안진고교
姜東興 65 금성고교
權五學 61 한양(주) 전무
權鍾基 65 아쿠트유업
金宣中 60 진로(주) 사장
金昇政 64 선경(주) 사장
金永燦 62 전진고교
金昌珠 61 포스트디자인테크
金大鉉 62 국제고교
文哲漢 64 전진고교
閔丙快 65 서울대학교
朴建豪 63 상원고교

◇ 音樂大學

李成千 65 서울대학교

◇ 醫學大學

姜聖 62 대한고교
金英昊 68 서울대학교
金漢吉 63 서울대학교
金一協 68 서울대학교
朴貞姬 65 서울대학교
徐鍾錫 60 서울대학교
宋鍾基 64 서울대학교
李京植 66 서울대학교
李姬善 65 서울대학교
丁明錫 67 서울대학교
許溶 67 서울대학교
洪植根 63 서울대학교

◇ 經營大學

高錫振 70 파이롯트고교
金光得 70 해운대고교
韓宗德 70 의안고교

◇ 大學院

宋基勝 75 동진고교
女在善 68 서울대학교

◇ 保健大學院

金忠彥 69 서울대학교
洪澤康 70 서울대학교
林鳳澤 70 서울대학교

◇ 獸醫科大學

桂奉龜 61 동원고교
金繼錫 67 서울대학교
白文英 68 연세고교
白忠基 77 백동고교
鄭鍾華 66 서울대학교
鄭興賢 61 서울대학교
趙休賢 63 서울대학교

◇ 齒科大學

具寬書 63 구치고교
金基昌 70 구치고교
金命得 65 구치고교
金鳳浩 60 구치고교
閔丙德 70 구치고교
邊榮男 69 구치고교
成事煥 65 구치고교
申榮均 65 구치고교
梁厚烈 60 구치고교
尹興烈 65 구치고교
李健奎 63 구치고교
李珍珪 67 구치고교
李仕鉉 61 구치고교

◇ 其他

朴成錫 65 한서고교
朴榮祐 64 한서고교
朴在潤 63 한서고교
成俊慶 63 한서고교
孫建來 69 한서고교
申世吉 61 한서고교
慎南根 64 한서고교
沈載善 64 한서고교
俞炳憲 61 한서고교
尹陽敏 69 한서고교
李壽益 65 한서고교
李在錫 67 한서고교
李宗秀 68 한서고교
張炳琇 67 한서고교
鄭鍾錫 64 한서고교
鄭煥發 65 한서고교
蔡炳九 63 한서고교
崔銘元 60 한서고교
崔鍾元 69 한서고교
洪國泰 69 한서고교
洪斗杓 65 한서고교
黃昌學 69 한서고교

◇ 其他

丘成大 68 한서고교
金東根 65 한서고교
金榮榮 62 한서고교
閔永玉 60 한서고교
朴建春 66 한서고교
朴炳善 64 한서고교
朴聖德 64 한서고교
朴永寬 64 한서고교
白相豪 69 한서고교
辛永培 62 한서고교
劉賢源 62 한서고교
李大一 65 한서고교
李尚國 63 한서고교
李鍾柱 63 한서고교
李柱源 68 한서고교
林漢鍾 67 한서고교
鄭應男 68 한서고교
趙煥九 60 한서고교
崔在得 63 한서고교
洪淳元 66 한서고교

一般

◆ 文理科學

▲張珠鏞 67	▲인성의의장	▲金聖奎 72	▲대한체육회본부장	▲金桂鳳 77	▲대전지합사장	▲全珠植 64	▲국가안보회의	▲崔震芝 64	▲국회의원	▲黃運泳 62	▲그레고르사가스사장	▲環境大學院													
▲司法院大學院	▲朴鍾喆 64	▲대전지합사장	▲申明均 69	▲서울지법부장판사	▲鄭京植 65	▲대전지합부장	▲許京萬 65	▲국회의원	▲新聞大學院	▲姜政昌 70	▲前지안보부장	▲金泰天 70	▲대한응급진입협회	▲劉日演 75	▲일진로수사장	▲黃榮一 72	▲그레고르사안부	▲行政大學院							
▲金인환 68	▲김정기 65	▲김정철 62	▲박기영 65	▲박희철 63	▲서승철 67	▲송기호 76	▲양철환 69	▲유재우 65	▲이동훈 60	▲이영복 66	▲이창수 69	▲장희석 73	▲제민호 66	▲지석재 68	▲최필선 69	▲최필선 65	▲홍건민 69	▲自然科學大學							
▲김정우 76	▲김영철 67	▲박관표 68	▲박문섭 64	▲서도원 67	▲송철성 65	▲신필환 73	▲유재환 62	▲이진진 68	▲이동원 68	▲이종범 73	▲임원호 69	▲장영선 69	▲주성일 67	▲최인 61	▲최홍표 69	▲최홍표 64	▲최홍표 69	▲看護大學							
▲조은영 68	▲조진숙 75	▲김민우 72	▲박정호 69	▲이경미 66	▲진진화 74	▲최원희 68	▲經營大學	▲파승근 77	▲김택식 69	▲김원재 69	▲김태환 73	▲박세환 69	▲서하수 68	▲송영철 60	▲유준근 69	▲유태훈 77	▲이재형 78	▲이효민 63	▲임영식 62	▲최산진 69	▲허필주 69	▲工科大學			
▲김인섭 62	▲김영열 61	▲김인수 79	▲김일진 58	▲김재철 62	▲김재환 58	▲김정선 71	▲김중철 65	▲김중복 71	▲김준식 69	▲김진우 79	▲김철민 68	▲김중기 67	▲김영수 68	▲김희우 64	▲나영훈 58	▲노병환 55	▲노정선 69	▲노홍삼 69	▲류계하 62	▲마성호 73	▲문차복 77	▲민정기 71	▲박강 69	▲박명호 79	
▲김인봉 69	▲김영수 67	▲김인환 73	▲김재영 57	▲김재수 61	▲김재희 67	▲김정희 67	▲김중광 68	▲김중호 74	▲김진우 56	▲김찬식 65	▲김종길 62	▲김태경 67	▲김동대 70	▲김희수 62	▲남부철 59	▲노홍배 69	▲노창호 68	▲도명규 43	▲마경석 43	▲문경선 68	▲민학식 75	▲박정렬 64	▲박문식 70		
▲이정진 71	▲오병태 59	▲오영현 71	▲오인식 79	▲우동현 74	▲유구수 71	▲유승우 67	▲유정철 58	▲유정민 67	▲유석식 67	▲유지택 68	▲유지훈 62	▲이진영 79	▲이정철 63	▲이규진 67	▲이기웅 58	▲이대훈 62	▲이대훈 72	▲이보영 76	▲이산배 61	▲이선우 63	▲이세준 68	▲이수형 69	▲이수환 61	▲이영철 67	
▲오병환 70	▲오양섭 65	▲오의진 66	▲우동화 66	▲원광일 76	▲유우영 64	▲유인호 63	▲유정희 57	▲유용산 70	▲유의준 63	▲유호기 74	▲이진채 65	▲이정훈 69	▲이규종 64	▲이근배 52	▲이규호 77	▲이대훈 72	▲이보영 76	▲이산정 72	▲이산복 68	▲이선훈 69	▲이수환 61	▲이수준 60	▲이승원 47	▲이영선 79	
▲정성훈 65	▲정진만 72	▲조철환 73	▲조주환 49	▲조성환 67	▲조성태 69	▲조영일 67	▲조일제 58	▲조경수 61	▲조항기 57	▲조중삼 58	▲조현영 64	▲주석범 68	▲지규하 62	▲진영대 75	▲차진용 74	▲이규배 52	▲이근배 72	▲이보영 76	▲최원복 73	▲최종석 65	▲표상수 74	▲한대림 64	▲한성호 69	▲한대식 62	▲한진수 68
▲심영환 58	▲순재재 52	▲순세근 59	▲순해일 75	▲송재원 48	▲송창호 65	▲신해석 62	▲안동하 69	▲유기환 60	▲유영기 66	▲유현환 74	▲유진복 67	▲유재수 70	▲이명환 69	▲이성호 75	▲이복남 63	▲이승환 79	▲이승환 67	▲이명환 64	▲이재환 63	▲이창환 70	▲이영환 63	▲이영환 65	▲이영환 67	▲전현일 69	▲전현일 69

同窓會 활성화의 지름길

後輩에게 獎學혜택、 뎃뎃한 선배구실

◇(주)京紡

▲홍순인	▲한광희	▲주영구	▲최우석	▲주점식	▲조원익	▲조한수	▲장영홍	▲이희문	▲이태규	▲이재현	▲이신섭	▲유영취	▲우소룡	▲신화용	▲송용하
(66)	(88)	(50)	(57)	(69)	(73)	(63)	(77)	(71)	(59)	(48)	(57)	(62)	(65)	(50)	(49)
▲홍인일	▲한하길	▲하동룡	▲최태진	▲채동규	▲조성식	▲조규한	▲정전기	▲이희주	▲이해근	▲이종호	▲이인기	▲이석규	▲우용렬	▲양영익	▲신화하
(65)	(67)	(64)	(63)	(38)	(66)	(43)	(57)	(69)	(75)	(59)	(77)	(62)	(61)	(70)	(61)
▲계수표	▲김소중	▲김석호	▲조승현	▲송범선	▲배병후	▲김영권	▲임창제	▲이명복	▲김영식	▲김남호	◇	▲주선회	▲조명회	▲조명회	▲조명회
(49)	(68)	(58)	(49)	(48)	(47)	(48)	(45)	(39)	(34)	(36)	醫科大學	(76)	(69)	(69)	(69)
▲고영희	▲김영열	▲김영열	▲조원자	▲이남수	▲성문문	▲기익식	▲정영록	▲임영식	▲이광수	▲위정렬	▲	▲황관섭	▲조학현	▲조학현	▲조학현
(57)	(73)	(55)	(54)	(48)	(48)	(43)	(37)	(32)	(41)	(44)		(71)	(65)	(65)	(65)
▲이영희	▲이영우	▲이성우	▲이신촌	▲이별철	▲이동호	▲이규주	▲이광우	▲이강로	▲유영택	▲유규섭	▲유세화	▲원상희	▲오준식	▲오철	▲오철
(65)	(69)	(59)	(79)	(65)	(73)	(84)	(76)	(71)	(72)	(85)	(58)	(81)	(53)	(75)	(75)
▲이우용	▲이인복	▲이승택	▲이신형	▲이병훈	▲이민섭	▲이규형	▲이광진	▲이진열	▲유영규	▲유세희	▲유필문	▲유인협	▲유준호	▲오준희	▲오준희
(71)	(58)	(82)	(76)	(82)	(70)	(82)	(68)	(87)	(75)	(76)	(72)	(74)	(88)	(75)	(89)
▲김영진	▲김성민	▲김복석	▲김동현	▲김기진	▲김관호	▲권이봉	▲구재호	▲고결환	▲강승배	▲배금자	▲김영숙	▲조승현	▲신하규	▲황정수	▲함태영
(79)	(71)	(89)	(87)	(53)	(84)	(74)	(75)	(78)	(86)	(54)	(55)	(49)	(31)	(69)	(50)
▲김정철	▲김영우	▲김영민	▲김병아	▲김동복	▲김기진	▲김정식	▲권홍문	▲고원준	▲강진화	▲강석철	▲민복희	▲강종인	▲이동훈	▲황영열	▲홍영수
(89)	(84)	(74)	(85)	(79)	(56)	(74)	(83)	(74)	(86)	(64)	(53)	(57)	(41)	(87)	(73)
▲홍준환	▲한진희	▲한헌	▲최인영	▲최선일	▲최현	▲지대훈	▲주동현	▲조장원	▲조국형	▲정우형	▲정두용	▲전재명	▲장인석	▲이한희	▲이찬인
(84)	(77)	(84)	(73)	(76)	(80)	(76)	(78)	(57)	(89)	(49)	(79)	(76)	(76)	(64)	(78)
▲황영섭	▲허선	▲한만봉	▲추무진	▲최인수	▲최선주	▲차인준	▲주재식	▲조용태	▲조산현	▲정용삼	▲정용환	▲정홍	▲전영훈	▲임재만	▲이종환
(76)	(82)	(72)	(86)	(69)	(89)	(77)	(83)	(82)	(84)	(66)	(82)	(73)	(82)	(85)	(84)

▲한태호 (89)
▲전신훈 (86)
▲박용규 (89)
▲김건호 (77)
▲정현주
▲유영희
▲배우근

서울大家族 다함께 參與하여 山行의 즐거움으로 同門間의 유대를 더욱 굳혀잡시다.

소식

2학기부터 不足人力 보완

관 사면다한 오한은구
스 의피만하 천영물만하
영구스등 4개기관 11개부
아역사자운물사영부를만
게된다.

그시기간은 최소한 1화
기 이상으로, 본사예정부
야의정원이 있거나 동부

직장·총사자위해

기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된 이 강좌는 전기·전자·제어계측·컴퓨터공학 등 관련분야 종사자 및 대학원생들이 참가했다.

司法연수과정 수료생들

5월 5일
 모교로 편지 보내고
 사법법원 전집 연구가
 정제 9기 수료생
 30명(남학생 20명, 여
 학생 10명)을 위한
 수조교를 위한
 발전기 15, 50마
 와를 출동했다.
 5월 6일 수
 료한 제 8기 생
 5백만 원의 출
 학금 100만 원
 개관 후 수료생
 전원이 발전기
 조성에 참여하
 기 시작했다.

모교 이론물리연구소

모교 이름붙이기연구센터
(소장 宋熙星·60년 文理
大卒)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기초과학교육연
구진흥기원과 호암교수
회관에서 '약자와 중생
미지에 대한 제14차 국제
워크숍'을 모교와 한국과
화재단 및 대우재단의 후
원으로 개최했다.

定員外입학대폭축소

수능시험가중치, 과목별차
등점수, 시험시간표등 세
부인식요강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
다.

공과대학(學長 李基俊)은 지난 7월 12일부터 열흘간 최신이론의 습득과 응용기술의 실무 적용을 위한 제12회 직장인을 위한 하계단기 계속교육강좌를 실시했다.

통신이론 및 시스템,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의 이론과 실제, 디지털 음성신호 처리, 광대역 통신시스템, 최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本考査 1월 6~7일 실시

同一계열加算點 부여치 않기로

내申 40・修能 20・본고사 40%

母校에서 26일
학창의를 열은 94학년도
入試日程과 전원반입을 확
정, 대화별 고사를 내던
1월 6~7일 이틀간 실
시하고 人文·自然系列 교
차지원이 가능하도록 동
계열 가산점은 부여치 않
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
다.

모교에서는 특히 동문회 열가산점이 再修生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부여치 않기로 합의 따라 文·理科교차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총점 1천점에 석좌반영비율을 본고사 4백점, 내신석좌 4백점, 대학수능능력시험 2백점에

定員外
 白忠鉉(61년 法大卒)교무처장인 『계열별 모집다.』

수능 시험가 중저, 과목별차
등점수, 시험시간표등 세
부인시요강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통신이론 및 시스템,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의 이론과 실제, 디지털 음성신호처리, 광대역 통신시스템, 최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제 발표된 인사양청의 파면 1월 6~7일과 사를 치른 7~8일면 접고사후 22일 합계자를 발표한다. 여채는재열실 기고사는 1월 6~13일자 이에 실사키로 했다.

이외 따라온 12월 17~24일 인화원사를 고부하 고 21~24일 나물동안원서를 접수키로 했다.

로 배정하고 본고사에서
제외된 과목에 대한 평가
는 수능시험과 과목중人文系
는 수리탐구영역 점수에
자연系는 외국어영역의 점
수에 가중치를 부여, 정형
에 반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리고 본고사에서 과목별
총점을 차등화하고 수능시
험이 수컷된 점을 감안,

전그늘이여

선강화, 개

모교에서는 그동안 교포
자녀에 대해 매년 20~30
명씩을 모집해오던 학사과
정 신입생에 1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외교관 등 자녀에
대해서는 학사과정 신입생

에 한해 제원구부장이 20
명이내로 모집하면 것을
이내 7명이내 자연계
11명이내, 예체능계 2명
이내로 구분짓기로 했
다.

醫大學士편입제 도입

95학년도 실시, 당국에 승인요청

최근모의 과대학(學長 金勝煜)에 따르면 오는 95학년도부터 국내의 과대학 중 처음으로 학사편입제를 도입키로 했다.

의과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학사편입제는 94년 12월 중 국내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의학과(本科) 1학년 신입생 30명을 공개모

질하고 95년 대한인사에서
현醫豫科定員 1백 90
명중 30명을 줄인 1백 60
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研究所요람」발간

연구센터등 현황소개

최근 모교 研究處는「1993년도 서울대학교 연

구소 요람을 발간했다.
요람의 내용을 보면 19

夏季학교 열려
在外동포학생에

지난 6월 28일부터 국제
교육진흥원이 개설한 93년
도재외동포학생 하계학교

의 자력으로 단행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주재국 대사관에 신청하여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실시시키는 매년 여름방학 동안에 개최된다.

미친 교포자녀에 대해 하
사교정 신인화지원자격을
주던 것을 9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중·고등학교
전교정을 외국에서 미친
교포자녀로 제한하기로 했
다.

看護大 予科

학술강좌 실시

자닌 12월 13일에 걸쳐 모교 간호대학(學長 金梅子)은 서울대병원 A강당에서 미국의 간호학자인 매리시 스나이더박사를 초청, 하계학술강좌를 개최했다.